

5·18기록물 전산화 10년째 제자리

세계 기록유산 등재 10년 3개 기관에 방대하게 산재 통합관리 안돼 활용 못해 광주시 DB구축 용역 발주

5·18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5·18기록물 전산화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 기록물들은 5월항쟁의 진행과 역사성을 담고 있어 5·18의 전국화는 물론 세계화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지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가 여러 곳이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5·18기록물은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당시 '5·18 아카이브'를 설립해 기록물의 디지털화 작업을 하기로 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가 올해 '유관기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구축 ISP(국제표준 프로파일) 수립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5·18 기록물은 산재해 있지만 40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5·18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는 작업은커녕 어디에 어떠한 자료들이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올해 6월~12월 시예산 3억 원을 들여 5·18기록물의 DB구축 사업의 세부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ISP용역을 발주한다.

전문가들은 5·18 기록물의 전자적 영구보존을 위해 DB화는 필수이며, 진실 왜곡·편향 방지 및 진실규명을 위해 전산화 작업이 시급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즉 DB가 이뤄져야만 보유 기록물을 체계적·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보존 시스템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5·18기록물은 연구기관과 국가기록원, 외교사료연구원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광주 5·18 관련 기관 등에 방대하게 산재해 있다.

현재 5·18 기록물은 대표적으로 3개의 기관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다. 이중 '5·18기념재단'은 2만 5000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남대 5·18연구소' 2만 904여건,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5만 1387여건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3개 기관은 각자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내놓기 꺼려 했지만 5·18 기록물

의 전산화 작업과 통합관리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전후로 각 기관들이 5·18 기록물의 전산화 작업에 들어갔지만 어느 한 곳도 완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자료의 분류 기준과 작업 양식이 달라 전혀 호환성이 없다는 것이다.

3개 기관의 자료는 완전히 새롭게 전산화 작업을 해야만 활용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5·18 관련 한 전문가는 "3개 기관의 수장고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자료도 수천 건이다. 이왕 전산화 용역을 한다면 3개 기관의 모든 자료를 집대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갖춰야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장기간 소요되는 작업인 만큼 별도 전문 인력을 배치해 영구적인 자료 작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독도 교육' 강화

강사 지원·온라인 영상 제공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코로나 19로 인한 독도전시관 휴관에도 '독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11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따르면 기존 '친구야! 독도랑 놀자' 프로그램 외에 역사 강사 지원과 온라인 체험영상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친구야! 독도랑 놀자'와 '온라인, 친구야! 독도랑 놀자' 등으로 다각화해 독도 교육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친구야! 독도랑 놀자' 프로그램은 오는 7월24일까지 운영된다. 유치원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프로그램 신청하면, 역사 강사들이 체험교구를 가지고 직접 유치원을 방문하게 된다.

독도에 대한 실물자료와 설명을 통해 아이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독도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인형극도 진행된다. 또 아이들이 동도와 서도의 특징을 익힐 수 있게 독도 모형 꾸미기 체험도 구성했다.

'온라인, 친구야! 독도랑 놀자' 프로그램은 독도교육 영상자료 등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최두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장은 "코로나19로 독도전시관 단체관람이 어려운 지금 '찾아가는 체험'과 '온라인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했고, 앞으로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인식 함양을 위한 체험 기회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북구, 남도전통음식·광주대표음식 강좌 운영

광주시 북구가 남도의 맛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음식 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오는 13일부터 8월까지 주1회 10주 과정으로 2020년 상반기 남도전통음식, 광주대표음식 및 식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통음식 강좌는 ▲발효·저장음식 ▲향토음식 ▲떡·한과 ▲무형문화재 내림음식 ▲생활요리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강

이애섭·민경숙 선생의 실습 위주 강의가 진행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광주 대표음식 강좌는 ▲광주대표음식 푸드스타일링 등 한정식의 기본과정으로 마련됐다.

비빔 직장인과 주부들을 위한 '주말 생활요리 강좌'도 진행된다. 코로나 19로 기존 15주 과정을 10주 과정으로 줄이고,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 강의로 진행한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천 환경정화 활동 광주 동구청 직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사랑채운영협의회 및 주민들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학림교 부근에서 환경정화 활동으로 'EM흙공'(환경정화를 위한 유용한 미생물이 들어 있는 흙공)을 던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지역 학교 화장실 몰카 상시점검...관리 조례 제정

전남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앞으로 화장실에 혹시 설치됐는지 모를 불법 촬영기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전남도교육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실 관리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 교육청, 도 교육청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관장은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기관장은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매일 1회 이상 화장실 청소와 월 1회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더불어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대·소변기, 배수구, 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화장지와 종이수건, 세정제, 탈취제, 소독약품, 그림, 사진, 화분 등을 비치하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동신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A등급' 17억 2700만원 인센티브

동신대학교가 11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1유형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A등급'에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과 함께 '지역강소대학'으로 선정되면서 17억 2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돼 2020년 사업비(예정

액)가 48억 2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동신대는 증액된 사업비를 재학생들의 취·창업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 집중 투입,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동신대는 중장기발전계획 5개 분야 중 교육·산학협력·국제화 3개

분야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과 잘 맞고, 발전 전략과 세부 프로그램의 연계성이 우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재학생총원을,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정량지표가 뛰어나고, 세부 지원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비를 배분·집행하는 등 혁신사업의 기획이

뛰어나다는 점도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한편, 동신대는 지난 2018년 교육부 대학기부역량 진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2019년부터 3년 간 대학혁신지원사업 1유형(자율협력 약형)을 진행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남구 '남구특목' SNS 기자단 20명 모집

광주 남구는 온라인 소통 강화를 통해 관내에서 펼쳐지는 삶의 이야기를 남녀노소 모두에게 전달하기 위해 남구특목 SNS 기자단으로 활동할 멤버를 공개모집한다.

남구는 11일 "블로그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SNS 매체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취재 역량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남구특목 SNS 기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

는 23일까지며, 20명 내외의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취재 활동 및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만 18세 이상 광주시민이다. 남구 주민이거나 사진 및 동영상에 관심이 많으면서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은 우대한다.

합격자는 오는 29일 발표되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 소정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